



**전북은행, 여성청소년 위한 보건의생용품 후원**

전주시와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7일 전주시청에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 위생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200상자(5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날 "여성 청소년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딸에게 보내는 선물'을 은행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면서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나눔을 실천해준 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석대, 대학드론축구대회 2회 연속 '우승'**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소속의 드론축구단인 에어브레이니가 제1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전했다.

에어브레이니는 지난해 열린 2회 대회 우승과 1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대학부 드론축구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대학드론스포츠 협의회·대한드론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2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우석대 에어브레이니는 F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 전주비전대 B팀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4강에서는 전주대 B팀을 2: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오른 뒤 전주대 A팀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이 대회 2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다매체 119신고서비스 적극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매체 119신고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는 문자·영상통화, 119앱을 통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등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119상황실로 터치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즉시 전송되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해, 재난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한 문자 신고서비스는 수신자에 119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접수되는 것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앞으로도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향군 여성회, 안보현장 견학**

전주시향군인회(회장 김용덕), 여성회(회장 김순자)는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 및 전사적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안보현장견학 행사는 3년 여만에 여성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2022년 여수엑스포가 열린 여수 일원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인 오동도 돌산공원, 전라좌수사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삼도수군통제사령을 설치한 한반도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여수 일대를 견학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고취와 안보의식을 함양과 향군여성회 친목 향상에 목적을 뒀다. /김영태 기자

**'긍정적 사고 통한 소통방식' 특강**

**개그맨 엄용수씨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통합 워크숍서**

무주군은 7일 개그맨 엄용수·건축가 양진석과 함께하는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워크숍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은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무주군이 전문가를 초청해 통합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무주전문회의의실에서 진행된 통합워크숍은 무주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업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체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교육으로 진행됐다.

개그맨 엄용수는 "긍정적 사고를 통한 소통방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주민들의 훌륭한 소통으로 모두가 어울리고 하나 되어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건축가 양진석 씨는 탄소중립시대에 걸맞게 목재건축의 필요성 및 사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무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PM단 손재권 단장(전북대학교 교수)은 사업 관련 관계자 교류회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관계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강연을



청소년키움 센터 등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문화교육 거점을 조성한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및 무주읍 내 시설간 연계를 강화하며, 반디코디데이터 양성,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등 지속가능한 무주의 일꾼인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 사업은 '모이고 어울리고 상상하는' 무주중심지'를 비전으로 오는 2023년까지 반디키움센터,

**전북교육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가정 위해 협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두 기관은 7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동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기부금 조성과 건전한 기부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을 돕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투명한 기부금 집행을 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공동협력에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가정의 학생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또 교



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경찰청,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합동점검·개선 추진**

전라북도경찰청(청장송 차인갑)은 지난 7일부터 4개월 동안 전북권 소재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4개 학교안산 해상중·고, 덕진 전주여고, 군산 제일중·고, 익산 이리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시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점검대상 학교 모두 등하교 시간대(7시~8시30분경)에 집중되는 학부모 차량과 통과차량 간 상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학생)가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부모 차량이 특정시간대 학교 앞 도로에 집중되고, 별도의 지정차 공간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차량을

학교 내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색갈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으며, 추가로 학교앞 전면도로에 지정차금지구역 조정, 정차금지대 및 시선유도봉, 유턴금지 규제표지,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했다.

또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장비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는 기존 도로에서 학부모들이 지정차원으로써 통행에 지장을 줬으나 신규 설치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승하차함으로써 차량의 소통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계획이라고 칭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시범 삼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소하영·박기순 부부, 팔순잔치 대신 완주군에 쌀 기부**

팔순을 맞은 부부가 팔순잔치 대신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일 완주군 용진읍에 따르면 계상마을 소하영(전 완주군 의원), 박기순 부부는 80세를 맞아 잔치대신 쌀 8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가족들이 기념 잔치를 준비했지만 평소 이웃을 위한 마음이 컸던 소하영, 박기순 부부는 잔치 대신 쌀 80포를 용진읍에 기부했다.

소하영, 박기순 부부는 "쌀을 더욱 의미있게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쌀 80포대는 마을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 관내 40개 마을의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남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반찬 지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흥이네 반찬(대표 박혜림, 송수호)'의 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지흥이네 반찬은 센터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급식사업의 좋은 일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올봄부터 지속적으로 반찬을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흥이네 반찬 박혜림 대표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반찬 후원을 시작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의겸 정읍고 학생, 장학금 저소득 학생에 기부**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저소득 학생을 위해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정읍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김의겸 학생.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따르면 김 군은 7일 아버지인 광영교회 김영찬 목사와 함께 정읍시청을 찾아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김 군이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 미래 꿈나무를 위한 희망 장학금으로 받은 70만원과 자신의 용돈 30만원을 더해 마련했다.

김 군은 "용돈을 모아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자신이 받은 혜택을 어려움에 놓인 친구들을 위해 흔쾌히 전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는 김 군의 형인 김유겸(당시 정읍고 1학년) 학생이 자신이 받은 고등학교 입학장학금을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 개최**

제1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가 지난 4~5일 양일간 우석대학교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남·여 단식 B1·B2·B3·오픈 등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3개국 선수와 심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스포츠택지도학과 학생 등 300명이 참석했다.

대회 진행에 앞서 선수단과 심판단 등은 이태원 참가 회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자 B1에서는 배인성(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B2에서는 송문길(전북맹아학교), B3에서는 맹한영(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오픈에서는 차오신(豊? 중곡)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자 B1에 송은비(전북맹아학교), B2에 박담은(전북맹아학교)이 1위에 올랐다.

단체상 1위는 전북맹아학교에게 돌아갔으며, 2위는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3위는 우석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라종일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회장이 출연한 백봉장학금과 박근숙 회장이 출연한 박근숙 장학금에 대한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일본의 다케이 미요시(Takei Miyosi) 씨가 소리가 나는 특수 공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 현재 20개 국가에 보급돼 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기계과 학생들, 링크루투스 연구재단이사장**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 기계시스템디자인(기계과) 소속 학생들이 2022년 산학협력 EXPO에서 진행하는 링크루트(LINC 3.0 Reentry)에 출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에서는 처음 열린 프로그램으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이 LINC 3.0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확정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개 채용면접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전주비전대학교 기계과 2학년 정태웅 학생이 최우수상을, 최성현, 김운호 학생은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태웅 학생은 링크루트 청중평가단으로부터 우수인재로 다수의 표를 획득해 특별상도 수상했다.

위 학생들은 전주비전대학교의 참여기업인 ㈜에프엠에스에서 최종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부상으로 최우수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우수상으로 각각 50만원, 30만원이 주어졌다. /정은성 기자